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와 공간 조직적 개선방안 : 수도권 환경서비스를 사례로

Regional Discrepancy in Public Service Delivery and Rational Spatial Strategies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생존적 수요 및 경제사회적 기회의 충족, 불공평한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 중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등은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 공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영능력, 규모 및 재정력에 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비용 등 공급수준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수도권 환경서비스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계획 및 공급체계, 도시개발과 공급계획 간 연계 등 공간조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시·군의 환경서비스는 공급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나 재원조달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간 재정력 차이, 경직된 국고보조체계 등으로 공급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여 공급수준의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절적 계획 및 공급체계로 공급시설의 광역적 이용·설치가 어렵고, 서비스공급과 도시인구성장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특히, 대도시주변지역에서 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적·보완적 공급체계 강화, 공급관련 계획체계 정비, 서비스공급과 인구성장간 연계강화 등 공간조직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급계획 및 정책의 광역조정체계 구축, 환경서비스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유형 다양화, 수요추정·부지확보 등에서 공급계획간 역할분담 명료화, 공급시설 확보기준 개선, 네트워크형 공급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형 공급체계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전통적인 공간조직이론인 중심지이론 대신에 도시망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간조직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환경서비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하여 공간조직을 개선함에 있어서 지역실정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도시지역은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인접지역과 협력·보완적 서비스공급을 강화하고, 대도시주변지역은 향후 예견되는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공급시설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